**깟짜나곳따경**

(Kaccānagottasuttaṃ- Venerable Kacchānagotta, 상윳따니까야 S12.1.5, 전재성님역)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밧티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삔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때 존자 깟짜야나곳따가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은 존자 깟짜야나곳따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깟짜야나] "올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 하는데 세존이시여, 올바른 견해란 어떤 것입니까?"

[세존] "깟짜야나여, 이 세상사람들은 대부분 존재나 비존재의 두 가지에 의존한다.

Dvayaṃnissito kho'yaṃ kaccāna loko yebhuyyena atthitañceva natthitañca.

깟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면 세상에 비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깟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면 세상에 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Lokasamudayañca kho kaccāna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natthitā, sā na hoti. Lokanirodhaṃ kho kaccāna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natthitā, sā na hoti.

깟짜야나여, 이 세상사람들은 대부분 접근, 취착, 주착을 통해 얽매여 있다. 깟짜야나여, 이러한 접근하고 취착하고 마음으로 욕구하여 유입되고 잠재되는 것에 다다르지 않고 붙잡지 않고 주착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면 일어난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사라진다'고 의심하지 않고 혼란되지 않는다. 여기서 그에게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지식이 생겨난다. 깟짜야나여, 이와 같이 올바른 견해가 생겨난다.

Lokanirodhaṃ kho kaccāna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atthitā, sā na hoti. Upāyupādānābhinivesavinibaddho3 khvāyaṃ kaccāna loko yebhuyyena tañca upāyupādānaṃ cetaso adhiṭṭhānaṃ abhinivesānusayaṃ na upeti, na upādiyati, nādhiṭṭhāti 'attā me'ti. Dukkhameva uppajjamānaṃ uppajjati, dukkhaṃ nirujjhamānaṃ nirujjhatī'ti na kaṅkhati. Na vicikicchati. Aparappaccayā ñāṇamevassa ettha hoti. Ettāvatā4 kho kaccāna, sammādiṭṭhi hoti.

깟짜야나여, '모든 것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다. 깟짜야나여, 여래는 그러한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

Sabbamatthī'ti kho kaccāna, ayameko anto. Sabbaṃ natthī'ti ayaṃ dutiyo anto. Ete te kaccāna ubho ante anupagamma majjhena tathāgato dhammaṃ deseti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역이 생겨나며, 여섯 감역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감수가 생겨나며, 감수를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나고, 갈애를 조건으로 취착이 생겨나며,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생겨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형성이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하며,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면 여섯 감역이 소멸하며, 여섯 감역이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하면 감수가 소멸하며, 감수가 소멸하면 갈애가 소멸하고, 갈애가 소멸하면 취착이 소멸하며, 취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며,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소멸한다."

註.

- 존재와 비존재 : atthita와 natthita. 한역으로 有無. 유는 존재의 영원성을 뜻한다. 여기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소멸될 수 없는 파르메니데스적인 의미에서 이해된다고 리즈 데이비스는 말한다. 여기서의 존재에 대한 견해란 존재의 영원성에 바탕을 둔 철학적 이론, 즉 영원주의로 알려진 상견(常見)을 뜻한다. 반대로 무란 존재의 불연속적인 허무성을 뜻한다. 비존재에 대한 견해란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허무주의, 즉 단견(斷見)을 말한다.

- 올바른 지혜로써, 즉 올바른 관찰의 지혜(觀智)와 올바른 길의 지혜(道智)로써 모든 형성되어진 존재들이 업(業), 무명, 갈애(渴愛) 때문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사실을 통찰한다면 현세의 존재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허무주의적 단멸론은 사라지며, 마찬가지로 모든 형성되어진 존재들이 끊임없이 무상하게 소멸해가는 것을 관찰한다면 모든 존재가 영원하다는 영원주의적 상주론은 사라진다.

- 접근, 취착, 주착을 통해 얽매여 있다... : upaya 는 접근, 시도 등의 뜻을 지녔는데 붓다고싸에 따르면 두 가지의 upaya, 즉 갈애에의 접근과 사견(邪見)에의 접근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주착(住著)이란 '빠져든 상태, 새겨진 상태'를 뜻한다. 갈애나 사견이 조건지어진 것과 관련하여 발생할 때 그것들을 '나 혹은 내 것(我, 我所)'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일으킨다. 그런데 가이거는 이를 경험적인 사물과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아 사유와 대상과의 점진적 결합과정의 절정들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정신은 대상에 묶여버린다(繫縛). 마음이란 의미와 관계된 것은 그 다음 문장의 adhitthana(욕구, 결정) abhiniversa(성향, 貫入) anusaya(경향, 잠재)이다.

Suttantapiṭake
Saṃyuttanikāyo
Dutiyobhāgo
Nidānavaggo
1.Abhisamayasaṃyuttaṃ
2. Āhāravaggo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1. 2. 5.

Kaccānagottasuttaṃ

15. Sāvatthiyaṃ -

[PTS Page 017] [\q 17/] atha kho āyasmā kaccānagotto yena bhagavā tenupasaṅkami. Upasaṅkamitvā bhagavantaṃ abhivādetvā ekamantaṃ nisīdi. Ekamantaṃ nisinno kho āyasmā kaccānagotto bhagavantaṃ etadavoca: "sammādiṭṭhi sammādiṭṭhī"ti bhante vuccati, kittāvatā nu kho bhante sammādiṭṭhi hotīti?

2Dvayaṃnissito kho'yaṃ kaccāna loko yebhuyyena atthitañceva natthitañca. Lokasamudayañca kho kaccāna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natthitā, sā na hoti. Lokanirodhaṃ kho kaccāna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natthitā, sā na hoti. Lokanirodhaṃ kho kaccāna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atthitā, sā na hoti. Upāyupādānābhinivesavinibaddho3 khvāyaṃ kaccāna loko yebhuyyena tañca upāyupādānaṃ cetaso adhiṭṭhānaṃ abhinivesānusayaṃ na upeti, na upādiyati, nādhiṭṭhāti 'attā me'ti. Dukkhameva uppajjamānaṃ uppajjati, dukkhaṃ nirujjhamānaṃ nirujjhatī'ti na kaṅkhati. Na vicikicchati. Aparappaccayā ñāṇamevassa ettha hoti. Ettāvatā4 kho kaccāna, sammādiṭṭhi hoti.

Sabbamatthī'ti kho kaccāna, ayameko anto. Sabbaṃ natthī'ti ayaṃ dutiyo anto. Ete te kaccāna ubho ante anupagamma majjhena tathāgato dhammaṃ deseti. Avijjāpaccayā saṅkhārā. Saṅkhārapaccayā viññāṇaṃ. Viññāṇapaccayā nāmarūpaṃ. Nāmarūpapaccayā saḷāyatanaṃ saḷāyatanapaccayā phasso. Phassapaccayā vedanā. Vedanāpaccayā taṇhā. Taṇhāpaccayā upādānaṃ. Upādānapaccayā bhavo. Bhavapaccayā jāti. Jātipaccayā jarāmaraṇaṃ, sokaparidevadukkhadomanassūpāyāsā sambhavanti. Evametassa kevalassa dukkhakkhandhassa samudayo hoti. Avijjāyatveva asesavirāganirodhā saṅkhāranirodho. Saṅkhāranirodhā viññāṇanirodho. Viññāṇanirodhā nāmarūpanirodho. Nāmarūpanirodhā saḷāyatananirodho. Saḷāyatananirodhā phassanirodho. Phassanirodhā vedanānirodho. Vedanānirodhā taṇhānirodho. Taṇhānirodhā upādānanirodho. Upādānanirodhā bhavanirodho. Bhavanirodhā jātinirodho. Jātinirodhā jarāmaraṇaṃ, sokaparidevadukkhadomanassūpāyāsā nirujjhanti. Evametassa kevalassa dukkhakkhandhassa nirodho hotī'ti.

Sutta Pitaka
Saṃyutta Nikāya
Division II - Nidāna
Book 12 - Abhisamaya Saṃyutta
Chapter 2 - Āhāra Vagg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12. 2. 5.

(15) Kaccānagotto - Venerable Kacchānagotta

1. I heard thus. At one time the Blessed One lived in the monastery offered by Anāthapiṇḍika in Jeta's grove in Sāvatthi.

2. Then venerable Kacchānagotta approached the Blessed One, worshipped and sat on a side.

3. Sitting, venerable Kacchānagotta said to the Blessed One: “Venerable sir, it is said right view, for what is it said right view?”

4. “Kacchāna, the worldling for most of the time is settled in either `there is' or `there isn't.'

5. “Kacchāna, to him who sees, the arising of the world, as it really is, with right wisdom, `the world is not' does not occur. To him who sees, the cessation of the world, as it really is, with right wisdom, `the world is' does not occur.

6. “Kacchāna, the worldling for most of the time approaches the active process of collecting substratum to get settled in a bond. He should not approach and resolve, to settle in the active process of collecting substratum, not seeing the self as mine. Only unpleasantness rises, and it ceases. He should not doubt about it. This knowledge should become his own not another's. Kacchāna, with this much he becomes one of right view.

7. “Kacchāna, `everything is there' is one extreme and `everything is not there' is the other extreme.

“The Thus Gone One, not reaching to either of these two extremes, teaches in the middle.

8. “On account of ignorance arise determinations. On account of determinations arise consciousness ... re ... Thus is the arising of the complete mass of unpleasantness.

“With the cessation of ignorance without a remainder cease determinations. With the cessation of determinations cease consciousness. Thus is the cessation of the complete mass of unpleasantness.”

[**잡아함경 - 301.가전연경**](http://budcanon.org/xe/index.php?document_srl=579)

（三○一）

如是我聞。　一時。佛住那梨聚落深林中待賓舍。　爾時。尊者[跳-兆+散]陀迦旃延詣佛所。稽首佛足。退住一面。白佛言。世尊。如世尊說正見。云何正見。云何世尊施設正見。　佛告[跳-兆+散]陀迦旃延。世間有二種依。若有．若無。為取所觸。取所觸故。或依有．或依無。若無此取者。心境繫著使不取．不住．不計我苦生而生。苦滅而滅。於彼不疑．不惑。不由於他而自知。是名正見。是名如來所施設正見。所以者何。世間集如實正知見。若世間無者不有。世間滅如實正知見。若世間有者無有。是名離於二邊說於中道。所謂此有故彼有。此起故彼起。謂緣無明行。乃至純大苦聚集。無明滅故行滅。乃至純大苦聚滅。　佛說此經已。尊者[跳-兆+散]陀迦旃延聞佛所說。不起諸漏。心得解脫。成阿羅漢。

여시아문。　일시。불주나리취락심림중대빈사。　이시。존자산타가전연예불소。계수불족。퇴주일면。백불언。세존。여세존설정견。운하정견。운하세존시설정견。　불고산타가전연。세간유이종의。약유．약무。위취소촉。취소촉고。혹의유．혹의무。약무차취자。심경계착사불취．불주．불계아고생이생。고멸이멸。어피불의．불혹。불유어타이자지。시명정견。시명여래소시설정견。소이자하。세간집여실정지견。약세간무자불유。세간멸여실정지견。약세간유자무유。시명리어이변설어중도。소위차유고피유。차기고피기。위연무명행。내지순대고취집。무명멸고행멸。내지순대고취멸。　불설차경이。존자산타가전연문불소설。불기제루。심득해탈。성아라한。

301. 가전연경(迦旃延經)

출전 : 한글대장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나리(那梨)라고 하는 마을 깊은 숲 속에 있는 대빈사(待賓舍)에 계셨다.

그 때 존자 산타가전연(산陀迦旃延)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소견[正見]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바른 소견이라고 하며, 어떤 것을 세존께서 시설하신 바른 소견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산타가전연에게 말씀하셨다.

"세간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유(有)와 혹은 무(無)이다. 취함[取]에 부딪히고, 취함에 부딪히기 때문에 혹은 유에 의지하고 혹은 무에 의지한다. 만일 이 취함이 없다면 마음과 경계를 얽어매는 번뇌를 취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으며, 헤아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에게 괴로움이 생기면 생겼다고 보고, 괴로움이 소멸하면 소멸했다고 보아 그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미혹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아는 것을 바른 소견이라고 한다. 이것이 여래가 시설한 바른 소견이니라.

왜냐 하면 세간의 발생을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본다면 세간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세간의 소멸을 사실 그대로 알고 본다면 세간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이것을 두 극단을 떠나 중도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이른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는 것이니, 즉 무명을 인연하여 행이 있고 ……(내지)…… 순전한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발생하며, 무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행이 소멸하고 ……(내지)……순전한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소멸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존자 산타가전연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해탈하여 아라한이 되었다.